

나르시시즘과 이상화

- 카레르의 소설과 오종의 영화에 나타나는 주인공 사례분석을 통하여

오 정 민

(덕성여자대학교)

1. 들어가기 전에

자기 자신의 이미지를 두고 사랑에 빠진 신화속의 인물, 나르시스는 라틴어로 나르시수스Narcissus로서, 성(性)과학자들이 이론적 용어로 쓰던 것을 프로이드가 호모섹슈얼들에게 있어서의 대상물 선택을 설명하기 위하여 1910년 도입하였다. 1911년, 프로이드는 자기성애와 대상물사랑 사이에 중간적 성적발전의 단계가 있음을 상정하여 1914년, 나르시시즘이란 용어를 정신분석학의 이론 전반에 포함시켰다. 자기자신에게 고착되었음을 의미하는 나르시시즘은 리비도를 자아Moi에 집중시키는 것으로서, 아동의 발달에서는 정상적인 단계이다. 그런데 나르시시즘이 성인에게서 관찰된다면 그것은 과거의 단계(stade archaïque¹⁾)로 돌아가는 일이 된다.

나르시시즘은 그렇게, 인간의 성적 발달에 근본적인 단계이다. 아기는 일단 자신의 몸을 쾌락의 대상물로 삼는다. 이것이 원초적 나르시시즘이다. 그

1) Jean-Pierre Chartier, *Introduction à la pensée freudienne*, Payot, Paris, 1993, 2001, p.176.

러다가 차츰 외부세계를 자각하게 되면서 자신의 리비도를 외부의 대상물들로 향한다. 그런데 부모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필요에 대한 응답을 받지 못하면 아이는 자꾸 자기 자신을 취하게 되고 결국에는 자신이 동일시되고자 하는 이상적 이미지를 혼자 구축하여 타자에 대한 집중이 결여되기에 이른다. 이 상태에서 신경증névrose까지 겹치면 정신병의 범주에 속하게 되는데, 그 증상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주체는 일류의 수준에 자신을 올려야 할 필요를 느끼고 자신의 판단(실지의 판단 혹은 추측하는 판단) 이외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러한 나르시시적 주체는 자신의 목적에 도달하기 위하여 타인들을 이용한다. 그래서 자신이 특출하다고 생각하여 항상 주목받기를 요구하는 반면, 타인이 느끼는 것을 같이 느끼는 능력은 결여된다.

엠마누엘 카레르의 소설「적」²⁾의 주인공 장 클로드 로망은 자신이 의사라고 15년 동안 가족들에게 거짓말하며 친지나 친구의 돈을 횡령하기도 한 실재인물이다. 따라서 전적인 픽션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다큐멘터리도 아닌 작품이 되고 있다. 이러한 인물에 대해 의학적 진단을 내리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가 나르시시즘의 특징을 많이 지니고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자신에 대해 갖고자 하는 이미지와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에 맞추려 온갖 수단을 동원한 것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소설에서 읽을 수 있는 신경정신과 의사의 보고서에서도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극도로 신경을 쓰는”³⁾ 장클로드의 나르시시적 자세를 볼수 있다. 또한 작가는 장클로드가 자신에게 적어준 정신과 의사 진료보고서 역시 인용하고 있다. “현재의 상태에서 그리고 정신작용의 과거단계un certain niveau archique de fonctionnement에서 장클로드 로망은 자기 자신과 (사랑의)대상물들 사이의 구별을 하지 못한다. 닫히고 무차별화된 총괄적 우주시스템 안에서 자신은 사랑의 대상물들의 일부이고 사랑의 대상물들은 자신의 일부로 되어있다.”⁴⁾ 나르시시즘에 대한 이러한 일반적 논의와 기본적 개념 확인에서 출발하여

2) Émmanuel Carrère, *L'Adversaire*, Éditions P.O.L. éditeur, 2000, / Gallimard, 2003.

3) Émmanuel Carrère, *L'Adversaire*, Gallimard, 2003, p.176.

4) *Ibid.*, p.44.

우리는 본문에서 나르시시즘이 갖는 여러 특성들을 살피되, 그것이 어떻게 작품 속의 인물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다. 이때 소설의 주인공과 아울러 프랑수아 오종의 영화 「사랑의 추억」⁵⁾의 여주인공 마리의 행적도 병행시켜 그 다양한 스펙트럼을 살피려 한다.

참고로, 「사랑의 추억」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마리는 사랑하는 남편과 휴가를 떠났다가 남편이 원인 모르게 실종되어 혼자 집으로 돌아온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어쩐지 그녀는 남편을 실지로 보고 느끼며 살고 있다.

2. 나르시시즘

우리의 두 주인공의 행적은 리비도 대상을 이상화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장클로드의 리비도 대상은 유능한 직업이며 마리의 리비도 대상은 남편이다. 그런데 나르시시즘에서 이상화*idéalisation*란 요소가 차지하는 위상은 가히 본질적이라고 할 수 있다.

1) 자아의 이상형으로서의 대타자

자크 포니에는 나르시시즘에 대한 저서에서 “이상형이란 낯선 신체로서, 자아는 그것이 마치 자기 자신에서부터 온 것처럼 다시 제것으로 삼는 것”이라고 말한다.⁶⁾ 장클로드에게 있어 의사라는 직업은 ‘외부에서 온 낯선 신체’이지만 마치 그것이 ‘자신의 내부에서부터 온’ 정체성인 것처럼 제것으로 삼고 있다. 그에게 있어 “무의식적 주체는 자신의 나르시시즘에 의해 정당화되어 자주성이 상실된 채집중에 의한 자기 존재를 개시하는 것이다.”⁷⁾

5) 원제는 「모래 밑에」(*Sous le sable*)이다. 2000년 작.

6) Jacques Ponnier, *Narcissisme et séduction, pour une critique métapsychologique du concept d'idéalisation*, ECONOMICA, Paris, 2003, p.IX.

7) *Ibid.*

나르시스적 주체가 자신의 이미지에서 찾고자 하는 바는 욕동의 대상물 이라기 보다는 자아의 이상형이다. 그리고 물에 투영된 이상형은 실질적 미 이상의 것으로서, 절대적인 새로움으로 나타난다. 욕구할 만하고 경탄할 만한, 아름다운 이미지의 새로움은 능동적 유희를 반복하는 일이다.⁸⁾

의과 2학년 때 시험에 출석하지도 않은 장 클로드느 혼자 방에 틀어박혀 지내면서 무엇을 생각했는가? 더욱이 이 당시 장래 아내가 될 여자친구와의 사이가 벌어질 무렵이므로 장 클로드는 친구와 그를 아는 모두로 하여금 자신을 경탄해하도록 만드는 ‘능동적 유희’의 수단으로 자신도 모르게 거짓말을 고안해 낸다. 또한 이상화된 자신의 모습에서 ‘능동적 유희’을 스스로도 느끼게끔 장클로드는 거짓말을 지속해 나간다. 다른 이들이 자신을 경탄해하지 않으면 자신도 자신의 이미지를 사랑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때 이상하고 놀라운 면을 허황된 걸모습에 입히기에 더욱 더 그 절대적 새로움이 강조된다. 그리고 허황된 걸모습은 이상하고 놀라운 면모를 가질만한 아무런 객관성도 없다.⁹⁾

장클로드는 의사라는 허울에 그치지 않고 유능한 투자가로서의 능력을 가미한다. 거기에 애인까지 두면서 선물공세로 ‘절대적 새로움’을 강조한다. 자상한 아버지, 애정있는 남편, 진지한 애인, 성실한 친구 등의 ‘놀라운 면모’는 바로 ‘허황된 걸모습’이며 아무런 객관성이 없다. 장클로드가 창조해 낸 세계 보건기구 의사로서의 허상은 나르시스가 갈망하는 자신의 허상, 자아의 이상형에 다름없다. 그러한 자신 안의 아름다움은 “시물라크르, 즉 흉내, 헛된 외모, 걸치레, 환상, 허상이며 곧 사라지고 마는 나르시스적 이미지”¹⁰⁾이다.

이때 나르시스적 사랑의 대상으로서의 타자는 나르시스적 주체에게 완벽함의 대안으로 다가온다. 그 주체는 살아남기 위해선 그 완벽함과 같아

8) Jacques Ponnier, *op.cit.*, p.10.

9) *Ibid.*

10) Jacques Ponnier, *op.cit.*, p.8.

져야 한다. 유희자인 대타자Autre는 물에 비추어진 자기자신의 모습 안에 강제로 이상적 차원을 새긴다.¹¹⁾

장 클로드를 나르시시적 주체로 보았을 때 그의 대타자는 바로 이상적 직업을 가진 자기 자신이다. 장클로드의 대타자가 자신의 투영된 모습 위에 강제로 입힌, 의사로서의 허상은 나르시시가 갈망하는 자신의 허상, 즉 자아의 이상형인 것이다.

닫힌 세포 안에서 자급자족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나르시시즘은 “나는 나 자신만을 열망하고 존경한다.”¹²⁾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의사라는 나르시시적 허상은 물 속에 비친 모습에 투영된 자신의 미이다. 그러한 자신의 모습과 영원히, 결합할 수 없는 나르시시의 절망은 영원히 의사가 될 수 없는, 결코 의사가 아닌 장 클로드의 번민과 닮아 있다. 모범적 가장, 권위 있는 직업 등은 그 자신 안에 있다고 혹은 있어야 한다고 여기는 아름다움이다. 그런데 그것은 헛된 외모이자 겉치레이며 물에 투영된 환상처럼 어느 때라도 사라질 수 있는 환영적 이미지이다. 나르시시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가치 이외의 가치는 하나도 갖고 있지 않다. 장클로드 역시 자신이 소유해야 한다고 믿는 가치가 곧 다른 사람들에게 과시하는 (자신의) 가치가 된다. “물 속에 비친 이의 아름다움은 분명 실재로 존재하긴 하지만 주체성을 가진 존재가 아니”¹³⁾기 때문이다. 장클로드가 자신에게서 찾고자 하는 이상적 모습 즉 아름다움은 껍데기에 불과한 허상으로서, 언제라도 사실이 밝혀져 사라질 수 있는 나르시시적 환영이다.

완벽한 이미지는 대조의 효과를 낳아 자아를 무너뜨리는가 하면 (장 클로드는 항상 자신이 퍼뜨려 놓은 자신의 허상에 짓눌린다. 실제의 자신과는 너무도 대조적이기 때문이다) 동시에 자아를 더욱 일으키기도 한다¹⁴⁾(이러한 힘에 의하여 그는 수년간의 거짓말을 지탱시킬 수 있었으리라).

11) *Ibid.*, p.11.

12) *Ibid.*, p.9.

13) *Ibid.*, p.10.

14) *Ibid.*, p.10

리비도적 측면에서 볼 때 자기 자신을 사랑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것이 나르시시즘이라면, 장클로드의 자신의 자아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기 보단 이상화된 자아로 사랑한 것이다. 그렇게 "자신 안에 있는 타자^{autre}는 자아의 이상형"¹⁵⁾인데 이것을 거짓말로 창조해 내었다. "이때 대타자는 나^{moi}를 구성하는 것이기에 정신현상을 이끄는 것은 이상형과 분리될 수 없다. 여기서 '이상적 나'와 '나의 이상형' 사이의 혼동이 자발적으로 생산된다."¹⁶⁾

타자가 거울과도 같아 그 타자를 통하여 자신을 사랑하는 경우가 나르시시즘이다. 장 클로드의 자신 안의 이상화된 대타자를 상정하여-그것이 날조된 것이라 해도- 그리고 그것을 외부 사람들에게 공포하여 자신을(이 자신 안엔 가족도 포함된다) 사랑하고 있는 것이다.

나르시시즘은 마리보다는 장 클로드에게 더욱 특성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심리현상인 것처럼 보인다. 행적의 목적과 향방이 자신에게로 향한다는 면에서 나르시즘은 주로 남주인공에만 적용될 것 같지만 사실, 나르시즘의 개념을 보다 면밀히 보면 그렇지 않다. 나르시스가 보는 자신의 모습은 이상적 대타자이고 그것은 항상 상태에서 어떤 모습을 보느냐라는 인식방식에 관계된 일이기에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마리의 자세에서도 얼마든지 나르시시즘적 특징들을 볼 수 있다. 즉 대타자(^{Autre})를 이상화하는 나르시시스의 면모를 볼 때 마리의 경우에 있어서도 나르시시즘을 거론해야 마땅하다.

마리에게도 남편은 두말할 나위 없이 이상화된 대타자의 이미지이다. 단, 이상형으로서의 대타자가 장클로드의 경우처럼 자신에게 향하지 않는 이유는 여아의 오디푸스 콤플렉스¹⁷⁾에서, 아버지의 페니스를 받는 것과 부합하여 아버지가 이상적 대타자인 것과 관련 있다고 우리는 본다. II부에서 보게 될 것이지만, 나르시시즘과 관련된 이상화를 거론할 때 우리는 오디푸스 콤플렉스가 미치는 심리적 영향을 같이 거론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남아에 있어서

15) *Ibid.*, p.50.

16) *Ibid.* p.50

17) 여아의 오디푸스 콤플렉스에 관해서는 다음 저작을 참고하기 바란다:

Mélanie Klein, *Le complexe d'Edipe*, Payot, 2006, pp.44-50.

는 어머니가 이상적 대타자이거나, 어머니가 요구한다고 주체가 상상하는 바가 이상화의 내용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 모두 II부에서 다루게 된다.

나의 욕망이란, 흐리건 뚜렷하건 간에 거울에 비추어진 듯한 나 자신의 이미지를 대타자 안에서 보는 방식에 의해서, 즉 상상적 구조 안의 내 입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부분적 대상은 이상적 형태를 갖추길 기대하는 내 신체의 실제적 이미지에 해당한다. 사랑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나의 이상형이 대상물 세계 안에서 이상적 자아의 수준 안에 놓여졌을 때 사랑은 생겨난다. 그러므로 내가 사랑하는 대상은 상상적 수준에서 실현된 나 자신이고 그래서 모든 사랑은 상쾌를 벗어나 열광적이다.¹⁸⁾

이러한 지적은 사람들의 이성에 대한 사랑에 관련되고 그러므로 마리에게도 적용된다. 나르시시즘과 무관하지 않은 이상화의 성향은 여성인 마리의 경우 상대의 이상화로 나타난다. 마리에게 있어 남편은 극도의 이상화의 대상이고 그럼으로써 우리는 마리의 사랑을 일종의 나르시시즘이라고 보는 것이다. 단, 장클로드의 나르시시즘이 나르시시즘의 정통적 정의에 해당되어, 사랑의 대상이 본질적으로 자신에게 향해 있음에 반해, 마리의 나르시시즘은 타인인 남편에게로 향해있다. 이러한 마리의 역(亦)나르시시즘을 나르시시즘과 무관한 선상에서, 예컨대 오디푸스 콤플렉스의 영향으로 분석할 수도 있다. 즉, “여아가 느끼는, 아버지의 페니스에 대한 경탄은 이전의 좌절이 긴만큼 감사의 마음이 첨가되어 완전하고 지속적으로 유일한 사랑의 대상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가장 커다란 능력으로 표현된다.”¹⁹⁾는 관찰이다. 아니면 나르시시즘에 이러한 오디푸스적 요소도 같이 작용하여, 마리의 극단적 이상화의 성향이 결정되는 것일 수도 있다. 또한 장클로드의 나르시시즘은 자신에 대한 타인의 의견, 시선에 신경을 쓰는 반면 마리는 그 반대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장클로드의 경우를 나르시시즘이라고 하고 마리의 경우를 역나르시시즘이라고 명명하고자 한다.

18) Jacques Ponnier, *op.cit.*, pp.24-25.

19) Mélanie Klein, *op.cit.* p.44.

장클로드의 나르시시즘	마리의 역(逆) 나르시시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타자를 자신 안에서 찾음 - 자신을 이상화함 - 타인들의 시선, 지적을 빈틈없이 메우고 정당화시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타자를 상대에게서 찾음 - 상대를 이상화함 - 타인들의 말, 시선에 무관심함

이상형은 바로 윗 단락의 내용과 같이 대상물을 위해서도 작용하지만(마리의 경우) 주체를 위해서도 작용한다²⁰⁾(장클로드의 경우). 주체가 현재의 자아를 이상과 비교할 때 이상의 형성은 자아에게 억압의 여건이 된다고 프로이드는 쓰고 있다.²¹⁾ 그 이후 이상형은 요구 사항(이상적 직업을 가져야 한다/ 모범적 남편, 아버지, 친구가 되어야 한다 등)과 금지(의사 시험에 출석 조차 안했으므로 의사가 되는 길은 금지되어 있다)를 부각시키는 심급이 되어 미래의 초자아를 예고하고 회복한다. "나르시시즘은 리비도적 현상이고, 그 이상형이 항상 자취를 보전하고 있다."²²⁾

프로이드는 "사람은 자신의 외부에서만 자신의 신기루, 자신의 전체적이고 실현된 모습을 본다."²³⁾고 말한다. 물에 비친 이미지가 외부적인 이미지에 자신이 자신의 이상형일 수 있고, 우리는 대타자 안에서 이상형을 찾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 외부적 형태 안에서 자아를 본다. 왜냐하면 그러한 형태는 우리의 불능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의사라는 이상적 직업은 장 클로드의 외부적 인간 형태이며 그것은 장 클로드의 불능과 연관되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전체적인 모습, 우리 자신의 신기루를 우리의 외부에서만 본다. "이것이 나의 이상형이다."²⁴⁾라고 말하면서. 장 클로드의 이상화는 "완벽에의 요구에 자아가 젖어 있고; 대타자로부터 온, 자아의 초월으로 부르는 유혹에 자아가 젖어 있다는 신호이다."²⁵⁾

20) Jacques Ponnier, *op.cit.*, p.51.

21) Freud, *Le moi et le ça, Essai de psychanalyse*, Payot, Paris, 1981.

22) Jacques Ponnier, *op.cit.*, p.53.

23) Freud, *op.cit.*, p.100.

24) Jacques Ponnier, *op.cit.*, p.80.

마리의 경우는 더욱 더, 자신 보다는 외부적 존재인 남편에게서 이상형을 본다.

2) 자아의 이상화와 전능함 / 이상형과 초자아

샤스케-스미르겔에 의하면, “자아의 이상화는 전능함을 잃어버림(=원초적 부재)에서 비롯한다.”²⁶⁾ 그 전능함을 되찾고자 함이 바로 인간 욕망의 근원 이어서, 초자아보다 더 명확히, 인간이 동물과 구분되도록 하는 요소이다. 거세 불안 위에 기초하는 초자아는 오디푸스 콤플렉스에서 보았듯, 내가 되어야 하는 바를 나타낸다.

자아의 이상형*idéal du moi*은 잃어버린 전능함을 되찾고자 혹은 얻고자 하는 욕망에서 나오는 반면 초자아*surmoi*는 거세 불안 위에 기초하고 그것에 의해 강요된다. ²⁷⁾

여기서 거세불안과 초자아는 오디푸스 콤플렉스의 요소이다.

자아의 이상형이 환영, 혼용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반면, 초자아는 아이를 어머니로부터 분리시켜 현실에 가치를 부여하도록 해준다. 전자가 어머니의 사랑을 가리킨다면(*É. Jaconbson*) 후자는 아버지의 징벌을 나타낸다.(*Numberg*). 자아의 이상형은 내가 되고 싶은 바를 나타낸다면 초자아는 내가 되어야 하는 바를 나타낸다.²⁸⁾

다른 이들의 눈에 보기에 장 클로드는 모범적 아버지, 가장 사랑이 가득한

25) *Ibid.*, p.94.

26) Janine Chasseguet-Smirgel, *La maladie d'idéalité*, Paris, L'Harmattan, 1990, pp.13-14.

27) Jacques Ponnier, *op.cit.*, p.143.

28) *Ibid.*, p.143. 자아의 이상은 초자아에게 즉, 부모의 가치에 복종하길 거부할 수도 있다. 그래서 초자아와 즉, 부모의 가치와 동떨어지거나 그것보다 더욱 높은 목적을 대비시키거나 개인적 자유 확언을 대비시키기도 한다. (*Ibid.*, p.143)

남편, 진지한 애인, 성실한 친구 등 완벽과 전능에 가까운 모델을 자신 안에 실현시킨다. 장클로드의 임상을 행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에게 있어 어머니와의 사랑과 관련된 자아의 이상형은 비대한 반면 현실에 가치를 두도록 하는 초자아의 발달이 부진함을 알수 있다. 현실 부정의 성향은 남편의 죽음을 인정 못하는 마리에게도 두드러진다. 현실에 가치를 부여하도록 해주는 초자아의 미발달이 현실을 부정하는 나르시시즘의 한 요건이라는 가정 하에, 마리의 행하는 남편의 이상화 역시 나르시시즘의 범주에서 벗어날 수 없다. 단 마리에게 있어 초자아 발달은 여아의 경우이므로 어머니를 토대로 성립되는 것이다. 남아, 여아에 있어 오디푸스 콤플렉스의 발달은 매우 다르다. 이는 본 논문의 지면분량을 초과하므로 다루지 않기로 한다. 어쨌든 마리의 경우, 남편의 죽음 이후에도 남편이 계속 살아 있는 것은 전능함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전능함을 되찾는 무의식의 작업에 의하여 죽은 남편이 계속 마리의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이다.

3) 도달할 수 없는 이상형

욕동의 억압을 촉진시키면서, 자아의 이상형은 나르시시적 요구를 증폭시킨다. 그래서 악순환이 생긴다. 즉 이상이 높고 도달하기 어려울수록 자아는 그것을 만족시키기 위해 욕동을 제한해야 하는데 그럴수록 이상과 나 사이의 간격은 벌어진다. 억압으로 인해 주체는 자아의 만족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²⁹⁾

장 클로드의 실제 처지와 거짓말로 이상화시킨 자신의 모습 사이에는 엄청난 간극이 있다. 나르시시적 주체인 장클로드는 실제적 만족이 있을 수가 없다.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바라볼 수만 있지 만질 수가 없기에 그의 곁에 도달할 수 없다. "도달할 수 없는 것의 유혹"에 끌려 장클로드는 계속 거짓말을 유지시켜 나간다. "완벽을 육화시키고자" 하는 그의 욕망은 "완벽한 통제를 하는 이미지", "모든 욕망을 완성시키는 이미지"³⁰⁾로 장 클로드는 자신을

29) *Ibid.*, pp.148-149.

단편시켜 나간다.³¹⁾

베르주레의 「나르시시적 병리현상」³²⁾에 따르면, 좌절된 주체는 "원초적 상황에 고착된 상태로 남아 있다." 즉, 미술적 능력을 지녔다고 여겨지는 외부대상물에 지속적으로 의지하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장 클로드의 "대타자에 의해 확인된 이상형의 흉내에 불과한 자아 이상형에 붙어 지내게 된" ³³⁾ 다. 아동기 때의 대타자이자 이상형은 장클로드의 경우 이상적 직업에 대응되며 마리에게는 남편에 해당한다. 이렇게 성인이 되어서도 인생초기의 심리구도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욕동과 나르시시즘 사이의 뛰어넘을 수 없는 갈등은 불능으로 이르고 이 경우 사랑의 상태는 이상형과 혼용하고자 하는 욕망에서 나온다."³⁴⁾ 장클로드가 가족으로 대표되는 자기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이상적 직업과 혼용했을 때에만 가능하다. 자신의 허위가 탄로나려 하는 즉시 그는 이상형과 분리되어 불능으로 이르고 더 이상 존재할 수 없게 되어 살인에 이른다. 마리는 남편의 이미지를 일상에서 보며 이상과 혼용하고자 하는 욕망을 환각으로 실현하며 살지만 마지막 해변가에서 남편을 향해 달려간다. 그러나 결코 남편에 도달하지 못할 것 같다.

"주체가 자신의 노력에 대한 허영적 생각을 확고히 갖게 되고 현실 상황을 견디지 못할 때 부인, 도전, 범죄와 같은 변태적 반복 진행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³⁵⁾ 이는 장클로드의 행각을 그대로 설명해 주고 있다. 남편이 살아있음에 대한 마리의 '허영적' 신념은 '확고'하다. 그리고 남편의 죽음이라는 버젓한 '현실상황을 견디지 못해 부인(否認)과 같은 변태적 반복 진행의 길로 들어서'는 것을 우리는 영화에서 본다.

30) *Ibid.*, pp.148-149.

31) *Ibid.*, p.149. 자아의 이상형이 무한히 멀리 떨어지고 이해할 수 없는 초월로 형상화 되는 경우를 야크 포니에는 기독교의 신에서 찾고 있다. 전지전능하고 초월적인, 인간의 이해를 넘는 존재로서의 신은 나르시시적 대타자이다. (*Ibid.* p.149.)

32) Jean Bergeret, *La pathologie narcissique*, Paris, Dunod, 1996, p.57.

33) Jacques Ponnier, *op.cit.*, p.151.

34) *Ibid.*, p.49.

35) *Ibid.*, p.149.

4) 자살하는 나르시스

“나는 나 자신에로의 사랑에 몸달아 오른다. 나 자신의 한복판에 있는 불꽃을 밝힌다.”³⁶⁾

완벽한 아름다움의 이미지 앞에서 나르시스는 물이 흔들리자 그것을 연인 이 자신을 버리는 것으로 인식한다. 눈물이 떨어져 물이 흔들려 자신의 모습이 더 이상 투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나르시스는 사랑의 대상이 없는 허무의 세계로 떨어진다: “머물러 나오, 잔인한 존재여. 너를 사랑하는 나를 버리지 말아 나오. 너를 만질 수 없다면 보고만 있을 수 있게라도 해다오.”³⁷⁾

물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소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챈 나르시스가 결국은 자살하듯, 거짓말로 지탱되어 온 이상형이 허물어질 즈음 장 클로드 는 허무의 세계로 떨어져 자살을 택한다. 사랑의 대상이 ‘의사로서의 자신의 모습’이 깨어져 사라질 때 그는 허무를 택한다. 또한 가족을 죽이는 일은 살인보다는 자살에 가깝다고 우리는 본다.

남편의 죽음을 현실 그대로 인정하는 일은 마리에겐 나르시스적 죽음과도 같다. 그것은 이제 남편을 더 이상 소유할 수 없는 상황을 깨닫는 나르시스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어찌면 마리는 일정한 대상에의 리비도를 유지하는 동안만은 적어도 남편을 보고 느끼면서 살지도 모른다.

3. 나르시시즘과 오디푸스 콤플렉스의 교차점

프로이트가 무의식의 기제를 명명하기 위해 그리스신화에서 이름을 따온 오디푸스 콤플렉스는 라캉에 의하면 남아의 경우, “어머니를 소유하고자 하는 바를 단념하고 아버지에게 자신을 동일시할 때 상상적 영역에서 상징적 영역으로 이행함”³⁸⁾을 나타내는 것이다. 인간의 정신현상 형성에 있어 중요

36) *Ibid.*, p.6.

37) *Ibid.*, p.8.

38) Jean-Pierre Cléro, *Le vocabulaire de Jacques Lacan*, Ellipses, Paris, 2002,

한 역할을 하는, 아동기의 무의식적 심리기제로서 우리는 나르시시즘이 오디푸스 콤플렉스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보고자 한다.

1) 오디푸스적 우울증, 금지와 나르시시적 전능함

라캉은 이상화된 자아 *le moi idéal*은 전능하고 이기적이며 무도덕한, 완벽한 이미지라고 말한다. 자아의 이상형 *l'idéal du moi*도 역시 그렇다. 왜냐하면 그 기체가 쾌락을 명령하는 법칙과 같기 때문이다. 자아의 이상형 역시 자아의 상상된 형태들 -이상적 투영, 크거나 위대함의 이미지, 환상-로 이루어져 있다. 자아의 이상형은 주체에 대한 공격적인 기체, 우울증적 기체에서 개입된다.³⁹⁾ 자아의 이상형은 방어적이며 ‘자신의 욕망에 반대하는 것’ 위에 세워져 있지만 그 ‘금지 안에서 위반하는 것’에 대한 전능함을 보여준다. ⁴⁰⁾

바로 위 단락은 나르시시즘에 관한 언급이다. 그런데 그 안에 우리가 오디푸스 콤플렉스에 해당되는 요소들이 합쳐 있음을 보게 된다. ‘우울증’이라든지 ‘자신의 욕망에 반대하는 것’ ‘금지 안에서 위반하는 것’은 오디푸스에서 남아의 경우는 아버지의 금지, 여아의 경우는 어머니의 금지를 함축한다. 그리고 자신의 욕망에 반대하는 것과 우울증은 오디푸스 발달상 특징적인 욕망의 좌절과 직접적으로 닿아 있다.⁴¹⁾

이 (오디푸스적) 순간은 자신의 입장에 의해 욕망에 장애가 되는 대상물을 떠오르게 한다. 그리하여 그 대상물은 위험한 것으로 느껴지는 위반의 아우라를 가진 것으로 나타난다. 그 대상물은 자아에게 있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언덕이며 자기가 승리했음의 예로 나타난다.⁴²⁾

장 클로드 에젠, 시험자체를 보지 않았으므로 의사가 되는 것이 금지되어

p.51.

39) Lacan, *Séminaire V, Le Seuil*, Paris, 1998, p.289.

40) Jacques Ponnier, *op.cit.*, p.78.

41) Mélanie Klein, *op.cit.*, p.29.

42) Jacques Ponnier, *op.cit.*, p.78.

있는데 그러한 오디푸스적 장애상황으로 인한 좌절은 나르시시적 기체와 혼용되어 금기에 맞닥뜨렸을 때 오히려 나르시시적 전능함을 (거짓말을 써서) 발휘하는 것이다. 반면 여아의 경우의 오디푸스는 금지에 대항하여 어머니 자리를 차지하고 아버지로부터 페니스를 받는 것이다.⁴³⁾ 남편의 죽음은 마리의 무의식 속에서 오디푸스적으로는 금기이고 나르시시적으로 보면 만질 수 없는, 영원히 도달할 수 없는 이미지이다. 그렇지만 전능하게도 남편의 이미지를 일상에서 느끼며 산다. 오디푸스적으로는, 아버지에 대한 소유욕은 아버지에 해당하는 리비도 대상 즉 남편이 아예 자신의 곁에 있음으로써 실현되고 있다. 이 때 나르시시적으로는, 불가능이 없는 상황, 전능한 상황이 환상 속에서 구현되고 있다. 오디푸스적 금지 앞에서 장 클로드스는 나르시시적 전능함을 자신의 전능으로 삼고, 마리는 나르시시적 전능함을 리비도적 대상이 자신의 곁에 있는 전능한 상황으로 실현하는데, 그 목적이 상대로 향해 있다. 이는 위의 표에서도 지적하였고 또는 남/여의 심리기능의 방향, 목적의 차이로 볼 수도 있다.

어머니의 그 눈길, 자신을 이상화하는 그 눈길 안에서 출발하는 변태적 주체에게 이상화는 자아의 이상형과 자아 사이의 엄청난 긴장을 무효화시키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왜냐하면 어머니는 처음에 어린아이인 나의 현실을 이상화시키기 때문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 이후 아이는 자신의 전생식기적 욕동이 아버지의 생식성보다 더 우월하다고 상상하기 때문이다.⁴⁴⁾

나르시시적 ‘이상형’은 “오디푸스적 남아가 자신을 아버지와 동일시하고 이상화하는 것이며 오디푸스적 여아에게 아버지의 페니스에 대한 도달할 수 없는 감탄”⁴⁵⁾이다. 나르시시에서 ‘이상형’은 물에 비친 자신의 이미지가 완벽한 미로 구현된 대타자이다. 그러므로 장클로드나 마리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 대부분에게 있는 이상화의 성향은 오디푸스와 나르시시 양쪽에서 온

43) Mélanie Klein, *op.cit.*, pp.41-42.

44) Jacques Ponnier, *op.cit.*, p.158.

45) Mélanie Klein, *op.cit.*, pp.44-49.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계속 라캉의 말을 들어보자: “이 오디푸스적 순간은 자신의 입장에 의해 욕망에 장애되는 대상물을 떠오르게 한다. 그리하여 그 대상물은, 위험한 것으로 느껴지는 위반의 아우라를 가진 것으로 나타난다. 그 대상물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언덕이며 자기가 승리했음의 예로 나타난다.”⁴⁶⁾

욕망에 장애되는 것은 위에서 언급한 대로 장클로드에겐 의사되지 못함이고 마리에겐 남편의 죽음이다. 그러한 욕망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장클로드는 거짓말을 하고 마리의 심리는 환상을 고안해낸다. 남주인공과 여주인공 각각의 거짓말과 환상은 심리적 방어수단이다. 아침식사하러 찬장을 열 때 마리는 컵을 하나만 꺼내야 하나 하고 심한 우울에 빠진다. 그러나 곧이어 ‘승리’한 듯한 기쁜 얼굴로 뒤돌아 보았을 때 바로 식탁에 남편이 앉아 있다. 장클로드 거짓말의 내용은 자신 방어인 동시에 ‘승리’의 상징이다. 두 주인공들이 고안해 내는 방어수단은 의사직업이라는/남편이살아있음이라는 “대타자로 인하여 자신의 전능함을 확인”하는 나르시시적 계기이다. 동시에 그것은 “네가 아무리 위반해도 너는 그럴 자격이 없다.”⁴⁷⁾고 말하는 부모 앞에 “나는 위반한다”⁴⁸⁾는 오디푸스적 금기 위반이다. 이때 구속, 부자유는 자아의 이상형이며 아버지 이미지⁴⁹⁾의 위반적 예는 리비도를 고양시킨다.

2) 오디푸스적 부모=나르시시적 이상화의 대상

나르시시즘의 우여곡절을 설명할 때 부모의 역할은 가장 중요하다. 예컨대 부모 중 한 쪽의 부재는 과도한 이상화를 야기할 수 있다. 또한 오디푸스적

46) Lacan, *Les complexe familiaux*, Navarin Éditeur, 1984, p.64.

47) Lacan, *op.cit.*, 1984, p.71.

48) *Ibid.*, p.71

49) 우리의 논지와 맞게라면 그리고 객관적으로 남성과 여성이 사회, 정치적 권리 면에서 동등한 존재라는 진리 앞에서 (생물, 심리적으로 동일하지는 않음을 우리는 보이고 있다), 오디푸스 콤플렉스를 말할 때 아버지 이미지만을 언급하는 것은 금기와 거세 공포의 반쪽만을 말하는 것이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남아의 오디푸스 콤플렉스의 경우이기 때문이다. 라캉은 이렇게 남아의 입장에서 한 쪽만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 대목에서 어머니/아버지 이미지라고 동시에 말해야 타당하다.

단계에서 금지로 인한 실망은 매우 크다. 바로 거기서 초자아와 그의 이상화가 형성되어 나르시스적 퇴행을 하지 않도록 보호한다. 대상물로부터의 본질적 실망이 있을 때 아이는 그로부터 이상화의 리비도 일부를 거두어 통제구조를 세우기 위해 욕동을 사용한다. 이상화된 부모 이미지가 내재화된 욕동을 제어하는 데 쓰이고 과거의 *archaïque* 나르시스적 요구를 누그러뜨리는 데 쓰인다. 그러나 심각한 외상적 실망의 경우(예컨대 부모 중 한쪽이 갑자기 죽으면) 숭고한 자아와 이상화된 대상물로서의 자아는 그대로 보존되어 최초의 *primitif* 목적을 실현시키고자 한다.⁵⁰⁾

여기서 우리는 나르시스와 오디푸스의 상호작용을 볼 수 있다.

나르시즘과 관련된 이상화와 오디푸스 콤플렉스가 병합되어 작용하는 또 다른 예를, 샤흐게-스미르겔이 해석하는 최초 장면을 통해서 보도록 하자.

어머니 성기는 거세의 경우를 확인시켜 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다. 어머니에게 성기가 없다는 사실은 아이로 하여금 아버지 페니스의 역할을 알아차려 결과적으로는 자신이 어머니를 성적으로 만족시킬 수 없다는 사실로 인도한다. 이러한 조건에서 현실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단단한 벽은 성차가 아니라 세대차이어서 그 세대차는 미래의 변태적 주체를 허무로 몰아낸다. 잡을 수 없는 나르시스적 이상형은 다가갈 수 없는 오디푸스적 어머니(여아에게 아버지와) 겹쳐진다.

다음은 욕동의 변태적 이상화의 또다른 양상이다. 아이는 이러한 수포, 무효화를 무찌르기 위해서 전생식기적 어루만지기가 어머니에게 충분하다⁵¹⁾는 환상을 구축해 낸다. 그래서 이제 아이는 아버지와 그의 페니스에 대항할 수 있다.⁵²⁾

'욕동의 변태적 이상화'란 주제는 프로이드의 언급 이래 수없이 다루어졌다. 아이는 “어머니의 이상화하는 눈길”⁵³⁾에서 자신이 사랑스런 완벽함을

50) Jacques Ponnier, *op.cit.*, p.141. 이러한 경우의 예로 자크 포니에는 니체와 마그너의 경우를 들고 있다.

51) 이 역시 남아만의 상황이지 여아의 상황은 아니다.

52) Chasseguet-Smirgel, *op.cit.*, p.21, p.23.

지니고 있음을 확인한다.⁵⁴⁾ 대타자Autre는 이상형의 모든 특성을 지니고 있다. 대타자는 나를 나 자신과 화해시켜 주는 모든 힘을 지니고 있고 내가 사랑 받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는 기쁨을 선사해 주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참고로 니체의 경우 변태적 입장은 바로, 불가능한 욕망의 대상물이다. 부분적 대상물들은 이제 자아에게 이상화된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이 된다. 그러나 그렇게 이상화된 자아와 자아의 이상형 사이의 지리학적 거리는 부분적으로 아직 남아 있다. 환각을 통해서 그 거리를 파괴할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건 물론 불가능하다. 이상화된 자아와 자아의 이상화가 혼용되는 것이 불가능한 이유는, 그렇게 되면 대타자가 이미 타자가 아니게 되기 때문이다.

유혹하는 대타자(부모)가 자아에게 이상형을 제안하지만 그 대타자는 자아에게 유혹하는 일을 금지한다.⁵⁵⁾

대타자가 부모라는 가정인 경우, 두가지 종류의 이상화가 있다. 첫째는 물에 비추어진 부모가 말하는 내용이 바로 이상형의 내용이 되어 내가 되고자 하는 바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이다. 이는 이상화와 관련된 나르시시즘으로 통한다. 둘째는 부모의 모습 자체가 이상형이 되는 경우이다. 이는 오디푸스 콤플렉스로 통한다.

3) 거세공포와 관련된 나르시시즘

더군다나 프로이트는 오디푸스 콤플렉스의 중요개념 중의 하나인 거세공포를 항상 나르시시즘과 관련지어 생각했다. "남근에 대한 염려의 형태로 남근을 포기함을 함축하는 만족에 대항하는 것은 나르시시적 생각기의 리비도 일 수 밖에 없었다."⁵⁶⁾

53) Jacques Ponnier, *op.cit.*, p.158.

54) Chasseguet-Smirgel, *op.cit.*, p.27. 이 부분 역시 나르시시즘과 오디푸스 콤플렉스가 만나는 지점이다.

55) Jacques Ponnier, *op.cit.*, p.144.

56) Freud, "L'homme aux loups", in *Cinq psychanalyses*, PUF, p.35

"유혹하는 대타자(부모)가 자아에게 이상형을 제안하지만 그 대타자는 자아에게 유혹하는 일을 금지한다."⁵⁷⁾는 관찰에서도 나르시시즘과 오디푸스 콤플렉스가 같이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상형은 나르시시즘과 관련된 요소이고 유혹하는 대타자로서의 부모는 오디푸스적 요소이기 때문이다. 장클로드의 경우 이상형이 자신의 직업적 능력에 투영된 경우이기에 나르시스적 무의식구도에 해당한다. 동시에 이상적 직업을 실현시킴에 대한 요구를 수반하고 있으며 그 요구는 어머니로 대표되는 부모로부터 오는 요구라는 상상으로 시작되기에 오디푸스와 관계있다. 마리의 경우 역시 같은 구도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프로이트는 아직 여아의 거세공포를 말하지 않고 있다. 프로이트가 여아의 거세공포를 말하기를 거부하는 이유는 여아에 있어 거세공포에 해당하는 것은 사랑을 잃음에 대한 공포임을 인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자크 폰니에는 말한다.⁵⁸⁾ 멜라니 클라인에 의하면 여아의 거세공포는 어머니가 자신의 내적 생식기관을 공격할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이 역시 나르시스적 생식기의 리비도이다.

장클로드와 마리의 거세공포가 리비도적 대상에 대해 갖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즉, 자신의 본체가 탄로나거나 남편의 죽음을 인정하는 것은 거세공포에 해당한다. 그런데 오디푸스적 요소인 거세공포는 자신신체의 일부에 관련되고 그것을 보전하려는 성향은 나르시시즘과 연관되는 것이다.

불안이 단순한 공포로 변하는 과정은 나르시시즘에서부터 진행되고 자아는 그 과정을 통하여 강화된다. 나르시스적 리비도는 리비도로부터 온다. 즉, 대타자를 유혹하는 지표를 가진 에너지로부터 온다.⁵⁹⁾ 오디푸스 콤플렉스 자체가 병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오디푸스 콤플렉스가 나르시시즘에 미치는 경우에 따른 영향이 병을 생산한다.⁶⁰⁾ 나르시시즘은 유혹과 좌절의 연속으로 점철된다.⁶¹⁾

57) Jacques Ponnier, *op.cit.*, p.144.

58) *Ibid.*, p.96.

59) *Ibid.*, p.127.

60) *Ibid.*, p.133.

이 때, 좌절은 오디푸스적 요소이다.

4) 자아le moi와 이상형 사이의 간극

우리의 두 주인공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긍정하여 받아들인 후 인생의 다른 진로를 모색하기 보다는, 현실을 부정하고 고집스럽게 어느 한가지로 정해놓은 이상형에 집착하여 매달리는 병리적 정신현상을 보인다. 그런데 소위 ‘정상인’은 현실을 100% 긍정하는가? 우리의 일상에서도 타인 앞에서 약간의 거짓말로 자신을 포장한다거나 지나간 사랑의 대상물에서 자유롭지 못한 경우가 있지 않은가?

그리고 자아와 이상형 중 어느 것이 ‘현실’인가?⁶²⁾ 자아와 이상형은 구분되지 않을 수 없는가?

자아와 이상형의 일치, 혹은 구분을 다루는 이 장(II. 2.)이 독립적으로 나르시시즘만을 다루는 I부로 편입되지 않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비록 자아와 이상형 사이의 간극이 나르시시즘의 대표적 특성이긴 하지만 다음 논지에서 보듯, 여기에서도 역시 오디푸스 콤플렉스적 요소가 같이 병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초자아는 간접적 나르시스 기능을 가지고 있다. 왜냐면 초자아는 불가능한 것을 금지시킴으로써 이상⁶³⁾의 원시적 요구를 제한하기 때문이다. ‘정상적’ 발달의 경우에는 이 초자아와 이상 사이의 사나운 대립이 완화된다. 왜냐면 ‘화농을 촉진시키는’ 이상이 나르시스적 환멸과 연관된 자질이나 행동(진리에 대한 사랑이나 명민함)을 투자하기 때문이다.

‘유혹하는 대타자’는 오디푸스 콤플렉스에서는 부모이며 나르시시즘에서는 물에 비친 자기 이미지이다. 유혹하는 대타자는 자아에게 이상형을 제안

61) *Ibid.*, p.141.

62) 이러한 질문과 함께 프로이드의 현실의 원칙, 쾌락의 원칙 (*principe de la réalité, pincipe du plaisir*)도 같이 다루어 볼 만한 주제인데, 그것은 다른 지면을 할애하여야 한다.

63) 남아가 어머니를 만족시키는 것/ 여아가 아버지로부터 페니스를 받는 것.

한다. 그렇지만 그 대타자는 자아에게 자아가 유혹하는 일을 금지한다.⁶⁴⁾

대타자Autre는 이상의 모든 특성을 지니고 있다. 대타자는 나를 자신과 화해시켜 주는 모든 힘을 지니고 있고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는 기쁨을 선사해주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바로 그래서 장클로드는 그리도 자연스럽게 엄청난 거짓말의 굴레에 들어갔던 것이다.

자아와 이상형이 불일치함을 내적으로 인식할 때의 예로 자크 포니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예컨대 직업에서의 도약의 부재, 허무에의 우울적 느낌 등은 외부로부터 오는 인정의 필요를 차단하는 기능을 한다.”⁶⁵⁾ 장 클로드는 외부의 인정을 날조하여 자아와 이상형 사이의 불일치를 메꾸려 하고 있다. 그에게는 이상형이 자신의 직업적 능력에 투영된 경우로 이상적 직업을 실현 시킴에 대한 요구를 수반하고 있는 것이다. 니콜 가르시아Nicole Garcia에 의하여 각색된 영화 「적」은 플래시 백flash back으로 전체가 구조되어 있다. 현재 아내와 아이들을 다 죽이고 집에 있는 주인공의 모습과, 과거의 비밀이 탄로나기 전 그의 생활이 반복적으로 교차되어 과거가 점진적으로 현재와 가까워진다. 그렇게, 분열된 내면의 풍경이 구도화되어 있다. 즉, 자아와 이상형의 분열로 대표되는 장클로드의 존재방식의 구도와 맞물린다. 전자의 자아, 후자의 이상형 사이를 왕복한 후 집에 불을 지르는 시점에서부터 영화 서술적 시간은 비로소 앞으로 나아간다. 자아와 이상형 사이의 분열의 거리가 클수록 현재가 비참하고 과거의 모습에서도 심적갈등이 연출되어 있다.

자아le moi와 이상형 사이의 간극은 긴장과 심한 불안을 야기한다. 거기서 그 간극을 메우려는 일련의 시도들이 나오게 된다. 마리의 경우, 실지로 남편이 죽었느냐는 ‘의문’에 대해 구조처로 가서 직접 확인하거나 남편의 어머니 댁에 방문하는 등 자신의 환상으로써 창조된 이상형과 자아 사이의 간극을 메우려는 시도를 하기는 한다.

창조적, 진취적 방법이라면 자아와 이상형 사이의 간격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의 두 주인공은 그 반대로 병리적 방향에 속한다. 자크 포니에는 그러한 시도들을 남김없이 열거하고 있는데,⁶⁶⁾ 장클

64) *Ibid.*, p.144.

65) *Ibid.*, p.144.

로드와 마리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항들이 눈에 띈다.

* 변태perversion

첫째로, 변태의 경우이다. 그것은 신경증적 죄의식을 절약하려는 것이다. 변태적 주체는 오디푸스적 범규와 관련하여 모순적으로 도전과 동시에 무죄의 관계에 있다. 아이는 오디푸스적 문제 안에 자리한 (어머니와의/아버지와) 불가능한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믿기에 이른다.⁶⁷⁾ 이와 관련하여 Joyce Mac Dougall의 임상경험은 장 클로드의 경우와 겹쳐지는 공통요소들이 많다: “그는 시험에 출석하지도 않고 학위를 땀다. 단, 그 학위를 절대 사용하지 않겠다는 조건 하에서 학위를 얻는다. 모조 왕홀을 가진 종이 임금인 그는 이제 자신의 정체성을 보호하고 *타인들*⁶⁸⁾이 그 가짜를 진짜인 줄 믿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속이고 사기를 칠 수 밖에 없다. [...] 이제부터는 가면이 벗겨지고 속임수에 대한 벌을 받을까봐 두려워 항상 염려하게 된다.”⁶⁹⁾ 이 부분은 나르시시즘과 오디푸스 콤플렉스가 만나는 지점에서 있을 수 있는 장 클로드의 경우가 특수한 개인의 한계를 넘는 보편성을 획득하게 되는 순간이다.

* 사기꾼imposteur

이 때 흥미로운 자세는 ‘사기꾼’ 자세이거나 ‘마치 ...인 인물인 듯한’ 자세이다.⁷⁰⁾ 이 자세는 변태와 비슷한 구조로서, 이들은 ‘보통의’ 남아들처럼, 리비도가 그 나이 단계에 필요한 변모를 거치면서 자아의 이상형으로서의 생식기적 아버지에 자신을 동일시하지 못한 경우이다. 아니면 혹은 아버지를 부인하고 다른 아버지를 원한다거나, 다른 아버지가 있다고 자신을 소개하거

66) *Ibid.*, pp.156-158.

67) 아이 때 이렇게 생각한 무의식의 지도가 그대로 성인이 되어서도 그 재료만 달리하여 작용한다고 보는 것이 여태까지 우리 연구의 논지이다. 이러한 ‘불가능한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믿고 그를 위한, 장 클로드와 마리의 심리적 대처방법을 우리가 여태까지 보았다.

68) 이탤릭 강조는 Dougall에 의한 것임.

69) *Ibid.*, pp.157-158.

70) Hélène Deutsh et Phyllis Greenacre, in Jacques Ponnier, *op.cit.*, p.159.

나, 이상화된 아버지에 즉각적, 마술적으로 동일시는 하는데 그런 아버지처럼 되려는 생각은 안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과정은 그 원인이 무엇인지 알 수 없고 다만 그 원인 안에 대타자가 작용하는 것은 아닐까 추측하고 있다.

* 편집 la manie

편집은 이상적 자아(moi idéal)와 자아의 이상형(idéal du moi) 사이의 혼용이 가장 잘 수행된 경우이다. 편집 증상에서는 초자아와, 가학-항문적으로 전능한 느낌이 사라진다. 이는 수동성과 대타자의 역할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경우이다.

* 망상 la paranoïa

과대망상증 la mégalomanie은 자아 안에서 나르시스적 리비도가 정지(停止)하는 증상이다. 주체는 나르시스적 리비도와, 그것과 반대되는 멀고 학대적인 이상(신 등)에의 복종 사이에서 망설인다. 그래서 주체는 또한 이상화하는 동성애적 리비도의 압박에서 벗어나거나 벗어날 수 있다고 믿는다.

여아의 심리형성을 본격적으로 다룬 멜라니 클라인의 저작을 조금만 벗어나면 남아의 경우만을 표준적으로 다루고 그에 반대하는 요소를 많이 지닌 여아의 경우는 전혀 언급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본문에서 그런 예가 많은 것은 자크 폰니에를 비롯하여 프로이트, 라캉이 남자이고 그들은 남성이라는 자신의 입장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로 해석을 가할 때가 있다. 일례로 여아와 남아에 있어 생식기 이후 상이한 발달 과정을 보이는 클라인의 관찰과는 반대로 라캉에게 있어 주체는 그 성별이 무엇이건 간에 항상 어머니를 욕망하고 아버지는 경쟁자이다.⁷¹⁾ 자아 le moi와 이상형 사이의 간극을 다루는 II부의 마지막 장에서도 역시 변태와 사기꾼의 유형이 남성, 즉 장클로드와 가까운 예가 된다. 여성 즉 마리의 예는 멜라니 클라인의 공헌에 힘임은 바가 크다. 그러므로 여아의 발달은 앞으로도 계속 개척되어야 할 연구과제로 남게 된다.

71) Jean-Pierre Cléro, *Le vocabulaire de Jacques Lacan*, Ellipses, Paris, 2002, p.51.

4. 마치며

정신분석학에서 나르시시가 차지하는 위상은 우리가 본문에서 보았듯 이상형, 타자, 대상물, 자아, 거세공포, 전능함 등 무의식적 심리현상의 다양한 요소로 나타나기에 지대하다고 말할 수 있다. 더욱이 널리 알려진 오디푸스 콤플렉스마저도 나르시시즘과의 연관 없이는 거론될 수 없음도 확인하였다. 이에 대하여 폴 로랑 아순은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무의식의 기초와 근원인 행세를 하는 나르시시가 마치 정신분석학 자체를 제것으로 삼은 듯 하다. 융과 극진히 협상하면서 프로이드는 오디푸스에서 나르시시스로의 이행을 예감하지 않았던가? 프로이드 이후의 학자들의 연구에서 나르시시스는 오디푸스를 내쫓고 말았다. 그것은 나르시시적 병리학이 모든 분야를 다 건드려 휩쓴 사실을 대변한다.⁷²⁾

오랜 세월 동안의 임상을 통하여 원형적 이론으로 정비된 정신분석학의 보고서들은 수많은 다양한 일상사례에 적용되고 있을 것이다. 그 한 예로 우리는 장클로드와 마리를 들어, 각각 소설과 영화에서 극단으로 치달은 경우를 통하여 인간의 어떤 보편적 성향을 더욱 선명히 조명할 수 있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장 클로드와 마리의 행적 분석의 의의가 있다. 그리하여 특히 나르시시즘을 통하여 남성, 여성 주인공의 경우를 해석하였다. 이 때 그 정신현상의 형성에 있어 오디푸스 콤플렉스의 심리기제도 같이 맞물려 작용하고 있다는 점도 보았다. 나르시시즘과 그에 관계된 무의식의 구조를 중심으로 본 이러한 연구가 각 예술 장르에 고유한 표현방식으로서의 기표(문자언어, 영상언어)가 야기하는 기의의 의미들, 그 수많은 해석 작업들 중의 하나로서 일조하기를 기대해 본다.

72) Jacques Ponnier, *op.cit.*, p.VIII.

❖ 참고 문헌

- 강유정, 『1960년대 소설의 나르시시즘 연구』, 서울 : 고려대 대학원, 2006.02.
- 金終順, 『Kleist의 「Michael Kohlhaas」에 대한 정신분석적 접근 : 나르시시즘 현상을 중심으로』, 부산: 釜山大 教育大學院, 1997.08.
- 김혜정, 『김승옥 소설에 나타난 여성인물 연구 :나르시시즘과 모성과외 양상을 중심으로』, 서울 : 한양대 교육대학원, 2005.08.
- 장경심, 『정신분석학적 해석을 통한 Paul Gauguin의 작품세계 연구 :대상관계이론과 나르시시즘이론을 중심으로』, 부산, 신라대 대학원, 2009.02.
- 송혜영, 『최인훈 소설에 나타난 나르시시즘의 정신구조 연구』, 서울: 서울시립대 대학원, 2001.02.
- 최양숙, 『나르시시즘적 인격장애의 이해 및 치유: Heinz Kohut의 자기심리학을 중심으로』, 서울: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1999.08.
- Allouch Éliane, Marie-Claude Lambotte et Vladimir Marinov ; préface de Marie-Claude Lambotte, *La démesure narcissique*, Collection Actualités psychopathologiques et culturelles, Paris : Nolin, 2004 (Ouvrage issu du colloque "La démesure narcissique, actualités psychopathologiques et culturelles", des 7 et 8 décembre 2003, organisé par le CPSC du département de psychologie de l'Université de Paris 13.)
[organisées par l'Association lacanienne internationale], *Grandeur et misère du narcissisme : condamnés à être libres / journées des 14 et 15 juin 2003*, Paris : Association lacanienne internationale, cop. 2004.
- Bergeret Jean, REID Wilfrid, *Narcissisme et états limites*, Paris : Dunod, 2003.
- Clero, Jean-Pierre, *Le vocabulaire de Jacques Lacan*, Paris, Ellipses, 2002.
- Chartier, Jean-Pierre, *Introduction à la pensée freudienne*, Paris, Payot, 1993, 2001.
- Carrere Emmanuel, *L'Adversaire*, Paris, Gallimard, 2003.
- Dessuant Pierre, *Le narcissisme*, Paris :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Collection Que sais-je?, 2007.
- Flagey Danielle ; préf. de Marie-Luce Verdier-Gibello, *Mal à penser, mal à être : troubles instrumentaux et failles narcissiques*, Ramonville-Saint Agne: Erès, 2002.
- Freud Sigmund; directeurs de la publication André Bourguignon, Pierre Cotet; directeur scientifique Jean Laplanche ; traduit de l'allemand [par Janine

- Altounian, André Bourguignon, Pierre Cotet...et al.]. *Oeuvres complètes: Psychanalyse / Volume XII, 1913-1914*,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2005 (Contient Le Moïse de Michel-Ange, Histoire du mouvement psychanalytique Pour introduire le narcissisme Ecrits techniques)
- Jeammet Nicole, NEAU Françoise, ROUSSILLON René, *Narcissisme et perversion*, Paris : Dunod, 2003.
- Klein Mélanie, *Le complexe d'OEdipe*, Paris, Payot, 2006.
- _____ ; textes trad. de l'anglais par Claude Vincent, *Le transfert et autres écrits : inédits de Mélanie Klein*, Paris :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2001.
- Lussier André ; préface de Patrick J. Mahony, *La gloire et la faute : essai psychanalytique sur le conflit qui oppose narcissisme et culpabilité*, Québec : Presses de l'Université du Québec, 2006.
- Manzano Juan ESPASA Francisco Palacio, *La dimension narcissique de la personnalité*,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impr. 2005.
- Nada. Laurence Arzel; préface de Loïck Villerbu ; avant-propos de Régnier Pirard, *Françoise Dolto et l'image inconsciente du corps : fondements et déplacement vers la pulsion*, Collection Oxalis, Bruxelles : De Boeck, DL 2006.
- Ponnier Jacques, *Narcissisme et séduction : pour une critique métapsychologique du concept d'idéalisation*, Paris : Anthropos, 2003.
- Porret Jean-Michel, *Auto-érotismes, narcissismes et pulsions du moi*, Collection Psychanalyse et civilisations, Paris Budapest Kinshasa [etc.] : L' Harmattan, DL 2006.
- _____, *Les narcissismes : Perspectives freudiennes et post-freudiennes*, Paris Torino Budapest [etc.], Collection Psychanalyse et civilisations : l'Harmattan, DL 2008.
- Rupprecht Caroline, *Subject to delusions : narcissism, modernism, gender*, Collection Avant-garde & modernism studies,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cop. 2006.

❖ ABSTRACT

Narcissism and Idealization
through the Analysis of Carrère's novel and Ozon's Film

OH Jungmin

Narcissism is a pathological phenomenon and narcissistic subject always needs to put itself on the top and has interest in nothing but its own determination. The protagonist of *Adversary* by Émmanuel Carrère does pay careful attention to what others are thinking of him while he does not distinguish difference between object of love and himself. So he can be allegedly narcissistic subject. And it can be said that the behaviors of Mary in the movie *Under the sand* by Ozon are included in narcissism in that narcissistic subject has the characteristics that idealizes the object of libido. However, in this study, the heroine is examined based on such a point that the object of love and extreme idealization incline toward others. We call this case reverse-narcissism.

In Part 2, it is investigated what relation narcissism as an unconscious psychological tool has with Oedipus complex, which plays an important role in forming human psyche. For instance, disappointment caused by prohibition at the oedipal stage is too severe, which creates superego and its idealization to protect in such a way that narcissistic regression can not be done. Cases of extremely big gap between ego and ideal type are perversion, impostor, mania, paranoia, etc, where narcissistic and oedipal elements are combined to affect.

Key Words

나르시시즘, 이상화(idealisation), 자아의 이상형, 전능함, 오디푸스 콤플렉스
narcissism, idealization, ideal type of ego, almighty, Oedipus complex

논문접수일: 2010. 2. 25.

심사완료일: 2010. 4. 10.

게재확정일: 2010. 4. 15.